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첨단·생명·문화 비전 도약 지원”

尹 대통령, 전북서 민생토론회

수소 상용차 생태계 구축
전북 통합재활병원 조성 등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 등
지방소멸 대응 과제
전북특별법에 반영 약속

18일 정읍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라는 주제로 모두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어제(17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내년 3월에 본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비만 한 24조 원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며, 정부에서 "원전 수주 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정부에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폭우로 전북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이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됐는데,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라는 세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새만금 단지를 신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10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전주 정읍을 포함한 전북 4개 지역을 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동물의약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 분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했고, 전주에 2,400억 원을 투입해 탄소 소재 국가산단을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 제공)

또한, 완주에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 수소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서 전주·완주·정읍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400억원을 지원해서 전북을 첨단 해양 장비의 연구개발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푸른 청사진의 전북 개발전략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로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계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붕괴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날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전북의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400억원을 투입해 2만4,000여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 팜을 강제와 장수에 조성하고,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서 첨단농업시설 입주 지원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미래 농생명산업은 첨단 기술, 문화 관광과 융복합한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고창 상하농원의 연간 30만명이 다녀가는 체험형 농촌 테마

공원처럼 농업의 혁신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강조하며, 전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내년까지 전주·군산·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국 K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18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소년 스포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위해 4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전주시에 건립 중인 150병상의 도립 전북 통합재활병원에 760억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전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 지원 사업 등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특별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며,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자치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큰 호응

안전망 확충 위해 조례 제정 후 작년보다 시행
'올 상반기에만 113건 6800만원 지급' 집계

전북특별자치도는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후반기)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행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 1만1,000여명으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등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자가 포함되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137건, 8,100만원이 지급됐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현재 113건, 6,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해 지원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의 '병 상해보험' 등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뇌졸중 진단비 300만원 △상해사망 5,000만원 △급성 심근경색진단비 3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외상성 절단진단비 100만원 △질병 사망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질병 후유장애 5,000만원 △전우수술비 20만원 △상해 입원(일당) 3만원 △골절 발생위로금(회당) 30만원 △질병 입원(일당) 3만원 △화상 발생위로금(회당) 30만원이며, 사업 수행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방방위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시 현장 홍보를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국 폭우 속 전북서도

호우 피해 신고 접수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호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도내에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나무 쓰러짐으로 인한 제기 신고가 가장 많았고, 전선 늘어짐으로 인한 안전 조치 신고도 뒤를 이었다. 실제 이날 익산과 김제, 군산 등에서 강한 비바람에 의해 나무가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제기 등의 조치에 나섰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정읍 내장산 46.5mm, 군산 어청도 43.0mm, 김제 40.0mm, 익산 합라 30.5mm 등이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의 호우특보는 해제된 상태지만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취약 지역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순항'

남원시, 23일 착공...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

정읍시, 현재 부지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 중

임산부와 출산 직후 영아들의 요양과 급식 등 모자 보건 복지를 증진시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3일 남원시 고죽동 현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2,40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정읍시 용계동 아산병원 인근에 부지 매입을 마치고 현재 연면적 1,089㎡,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설계가 추진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2026년까지 1개소당 7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13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 최신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길,
완주군민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꿈꾸는 길,
그 길의 '좌표'는 오직 '완주군민' 뿐입니다.



완주군의회가 완주군민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